

“우리 대통령 아니다” 전국 곳곳 ‘박근혜 흔적’ 지운다

광주 노대동 빗고을건강타운·대구 서문시장 사진 철거

제주 “‘5·16 도로’ 이름 바꾸자”…육영수 숭모제 ‘반쪽’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예우하기 어렵겠네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박 대통령과 가족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빗고을노인건강타운의 물리치료실에 걸려 있던 박 대통령의 사진은 지난달 초 철거됐다. 지난 2012년 10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곳을 찾아 노인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노인건강타운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0%를 기록하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시민 반발을 우려해 사진을 떼어냈다.

박 대통령이 태어난 대구에서마저 인기가 식고 있다. 대구 대표 재래시장이자 박 대통령이 자주 방문한 서문시장 상가 곳곳에 걸린 박 대통령 사진이 사라졌다. 한 식당 주인은 벽에 건 박 대통령 사진을 종이로 가렸는가 하면 상당수 가게는 사진을 아예 없애버렸다.

박 대통령이 다녔던 충북 청주 서문시장, 울산 신정시장에도 점포에 걸려 있던 사진이 없어졌다.

제주에선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인 ‘5·16도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라산을 횡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1131지방도는 5·16 군사정변 이후 정병태 흔적 5·16도로라고 불린다.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에 설치한 대통령 방문기념 안내판의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자 철거했다. 대구시 중구도 지난달

삼덕동에 있는 박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에 박 대통령 모습과 생가 안내 글을 취객이 붉은색 래커로 지우자 없었다.

한 대학생은 지난달 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등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9일 충북 옥천관성회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탄신 축하 숭모제

는 시민단체가 시위를 벌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예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숭모제는 문화공연이나 기념행사 없이 서둘러 제례만 치르는 방식으로 30분만에 끝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합뉴스



경찰버스에 핀 스티커 꽃

한 시민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시 중로구 통의동에서 경찰 버스에 부착된 스티커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朴,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최성규 목사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장관급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최성규(75·충남 연기·사진) 목사를 임명했다

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위원장은 전

임 한광옥 위원장이 지난달 3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신임 최 위원장은 한반도평화화해협력포럼 이사장,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종교 및 시민사회계 원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하야 등 ‘질서있는 퇴진’에 의견을 모았던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엘시티 비리’ 혐의 사전영장 현기환 자해 시도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30일 뇌물수수과와 일선수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66·구수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30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모 호텔에서 자해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시민과 함께 만든다

내년 1월 10일까지 스토리 펀딩…김부선·이한위 출연

1980년 5월 광주를 그린 인권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동정신’ 취지에 맞춰 스토리 펀딩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진

다. 영화 제작을 맡은 박기복 감독은 지난 달 27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10일까지 47일간 포털사이트(https://storyfund-ing.daum.net/)에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한다. 목표 후원금은 5000만원인데 지난 30일 오전 10시까지 225명이 후원해 840여만원이 모였다.

당초 60억 정도로 예상했던 총 제작비 투자자를 찾기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촬영·조명 등 스태프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기로 해 경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 영화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어머니와 개고맨 딸 희수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겪는 애증을 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권 유린과 폭압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찾는 휴먼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다.

어머니 역에는 ‘난방열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 씨가 맡았고, 대학생 의문사 주도로적으로 참여한 뒤 구청장으로 변신한 정보부 요원 역은 광주 출신 이한위 씨가 맡았다.

박 감독은 “모든 권력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영화 역시 시민의 힘에서 나온다고 본다. 인권을 다룬 영화인 만큼 시민 참여를 통해 의미가 더 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위고하 막론 성역없이 수사 수사기록 보고 대면조사 결정”

박영수 특검 인터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지난 30일 임명된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임명 이후 이날 처음으로 취재진과 마주한 박 특검은 자신의 각오 등을 담아 준비한 ‘임명의 번’을 먼저 읽었다.

여기서 박 특검은 이번 수사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른 수사’로 규정하며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특검 수사에 임하는 원칙을 밝혔다.

이어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 작업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 프로필

출생	1952. 2. 15(제주)
학력	동성고, 서울대 문리과, 고려대 대학원 법학, 단국대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1978 사법시험 합격(20회) 1980 사법연수원 수료(10기) 2000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2001 대통령 사정비서관 2005 대검찰청 중장수사부장 2007 대전고검정 2007~2009 서울고검정 2009~ 변호사(현)

/연합뉴스

인선 원칙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느끼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박 특검은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건 수사관답지 않다”면서 “수사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반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을 다 보고,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의혹이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도 박 특검은 “하여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그는 최재형 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검 중수부장-중수1과장으로 호흡을 맞춘 인연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이번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규명할까

슈퍼특검 40명 120일간 수사…‘이명박 BBK’의 3배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4·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지난 30일 임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 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 특검에 주어진 40일에 비하면 세배나 더 많다.

인력 면에서도 특검 본인 외에 차장검 사급 예우를 받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

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데려올 수 있어 전체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에 달한다.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저지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고 현직 대통령을 헌정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수사의 초점은 대통령에게 맞춰질 전망이다. 사실상 ‘박근혜 특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직 대통령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여론이 비등해 수사의 외적 환경에서도 역대 어느 특검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자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티브에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홍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1개월 완성, 원장직강, 책임지도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궁서체)

글씨교정기 교정 노트 ▶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9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12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